

주요 내용

1. [부목사가 보는 한국교회]
부목사, 하루 9.8시간, 주 5.7일 근무!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1) 노령화지수와 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 2) 동물실험과 개 식용 관련 인식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부목사, 하루 9.8시간, 주 5.7일 근무!

행정조직에는 스태프(staff)와 라인(line)이 함께 존재한다. 스태프는 '보좌기관'으로 인사, 회계, 예산, 서무 등을 통해 라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라인은 '보조기관'으로 수직적 계층 형태를 띠며, 직접적으로 목표 달성을 수행하게 된다. 교회 규모별로 수행하는 역할에 있어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교회에서는 부목사가 '스태프'와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교회 사역에 있어 핵심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부목사의 하루는 녹록지가 않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목사는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9.8시간으로 거의 10시간에 달하며, 주 5일 근무하는 일반 기업보다 더 긴 주 평균 6일 가까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면에서 부목사 생활의 힘든 점으로 '업무량이 너무 많음(47%)'이 가장 많이 꼽힌 점은 주목할 만하다. 비슷한 비율로 '적은 사례비'도 언급돼, 한국의 부목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낮은 보상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이번 부목사 조사는 기아대책과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미래 한국교회를 짚어지고 나갈 부목사들의 코로나 이후 교회 사역 실태 및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국교회를 예상하고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기획하였으며, 이 조사결과를 넘버즈<156호>를 통해 처음으로 발표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부목사가 보는 한국교회

부목사는 교회 행정, 사역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면서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사역의 핵심적 역할자이다. 또한 장차 담임목사로서 미래의 한국교회를 이끌어 갈 자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목사들의 전반적인 교회사역 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교회 트렌드를 추적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조사는 부목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교회 사역 실태를 조사하고 한편으로 담임목사와의 인식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교회 목회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할지 선제적으로 파악, 한국교회의 미래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다.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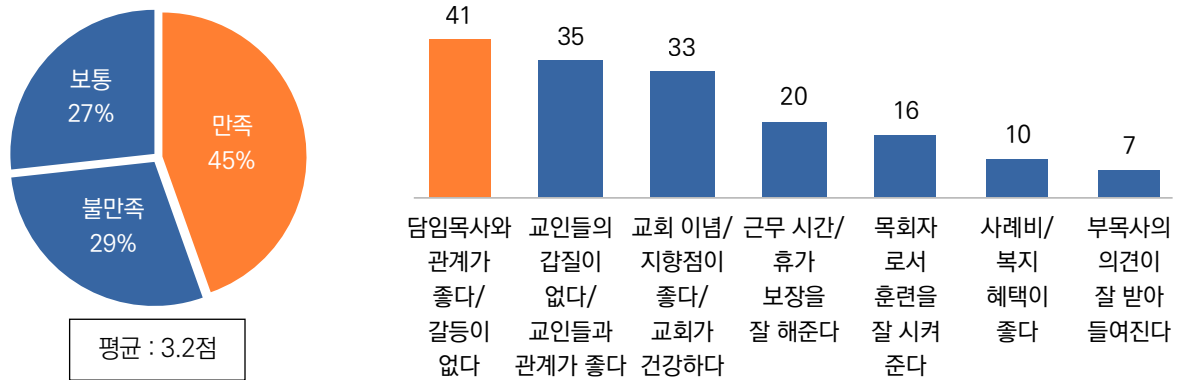
구분	내용
• 조사 대상	한국교회 부목사
• 조사 방법	리스트를 통한 모바일 조사 - 목회데이터연구소 구독자 중 부목사 디비 활용 및 담임목사를 통한 해당 교회 부목사 조사
• 표본 규모	총 553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편의추출 (Convenience Sampling)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조사 기간	2022년 6월 16일 ~ 21일 (6일간)
• 조사 주체	기아대책, 목회데이터연구소
•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부목사 생활 만족도, 5점 만점에 3.2점으로 비교적 낮은 편!

- ▶ 현재 부목사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은 결과, '만족한다(매우+약간)'가 45%, '불만족한다(매우+약간)'가 29%로, 만족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평균은 5점 만점에 3.2점으로 다소 낮았다.
- ▶ '부목사 생활에서 만족하는 점'으로 '담임목사와 관계가 좋다/갈등이 없다(41%)', '교인들의 갑질이 없다/교인들과 관계가 좋다(35%)'가 각각 1, 2위로 꼽혔는데, 담임목사와의 관계가 부목사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부목사 생활 만족도 (5점 척도) [그림] 부목사 생활에서 만족하는 점 (1+2순위,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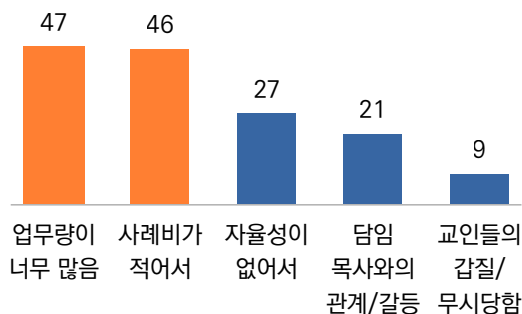


*만족은 '매우+약간' 만족, 불만족은 '약간+매우' 불만족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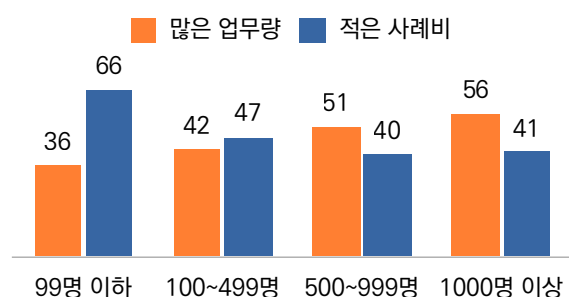
◎ 부목사 생활의 힘든 점, '과다한 업무량'과 '적은 사례비'!

- ▶ 부목사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업무량이 너무 많음(47%)'과 '사례비가 적어서(46%)'가 가장 많이 꼽혔다. 담임목사와의 갈등(21%)이나, '교인들로부터의 갑질/무시당함(9%)' 등은 상대적으로 낮아 전체적으로 '관계적' 어려움보다는 '업무량',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컸다.
- ▶ 교회 규모가 클수록 '많은 업무량'을,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적은 사례비'를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다. 교인 수 500명을 기준으로 그 미만은 '적은 사례비', 그 이상은 '과다한 업무량'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부목사 생활에서 힘든 점 (1+2순위, 상위 5위, %)



[그림] 부목사 생활에서 힘든 점 (많은 업무량 vs 적은 사례비, 교인수별,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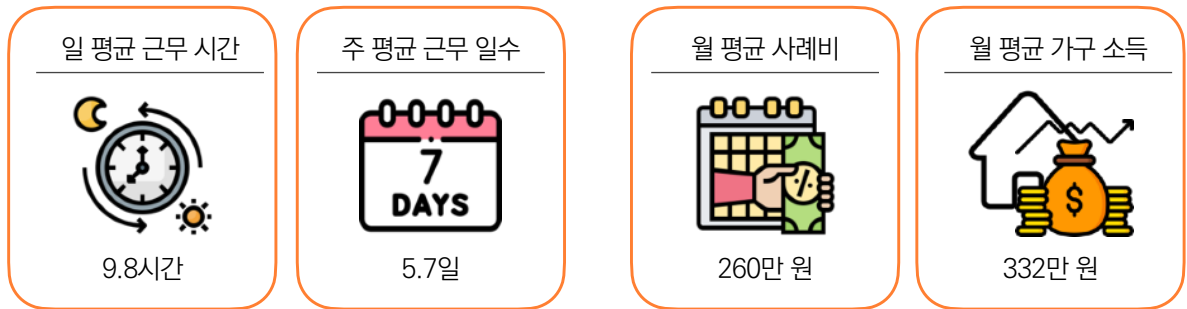
02

부목사(전임 기준) 주 평균 5.7일 근무하고, 월 사례비는 평균 260만 원 받아!

- ▶ 부목사의 1주일 평균 근무 일수는 5.7일로, 주 5일 근무하는 일반 기업보다 긴 편이었다. 또, 하루 평균 근무 시간도 9.8시간으로 나타나 주 5일 하루 8시간 총 40시간 기준 대비 40%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부목사(전임 기준)의 월 평균 사례비는 260만 원으로 조사됐고, 세부적으로 보면 200~299만 원이 절반 이상(59%)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 원 이상 30%, 199만 원 이하 11% 순이었다.
- ▶ 사례비를 포함한 월 평균 가구 소득(전임 기준)은 332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부목사 근무 실태 (전임 기준)

[그림] 부목사 사례비 및 가구 소득 (전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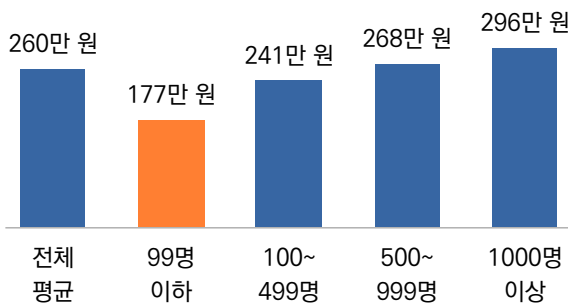


1주일 총 55.9시간 근무
→ 기본근무 일 8시간, 주 40시간 대비 1.4배 더 근무

◎ 교인수 100명 미만, '부목사(전임) 월 사례비' 177만 원!

- ▶ 부목사의 월 사례비는 교회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99명 이하 교회'의 경우 월 평균 177만 원으로 조사돼 전체 평균 260만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소규모 교회의 열악한 경제적 지원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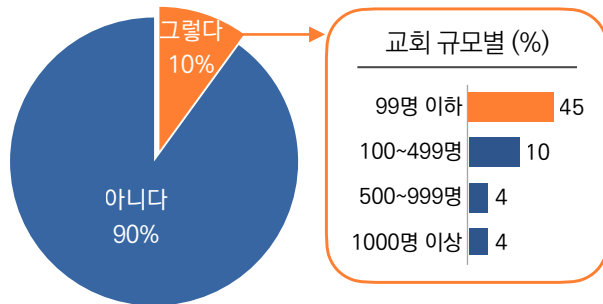
[그림] 사례비 (교회규모별, 전임 기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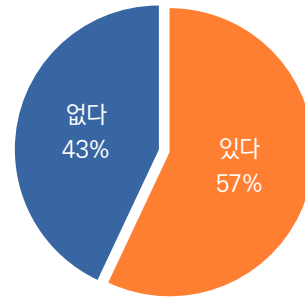
◎ 현재 이중직 ‘부목사’는 10%, 그러나, 향후 부목사 절반 이상(57%) ‘이중직 의향 있다!’

- ▶ 현재 교회 사역 이외에 다른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이중직 부목사’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 ▶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상’에서 현재 이중직이라는 응답이 27%로 조사돼 전체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았고, 교회 규모별로는 ‘99명 이하 교회 부목사’의 경우 무려 45%가 현재 이중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향후 이중직 의향을 묻은 결과, 비이중직 부목사의 절반 이상(57%)이 ‘있다’고 답해 높은 의향률을 보였다.

[그림] 현재 이중직 여부



[그림] 향후 이중직 의향 (비이중직 부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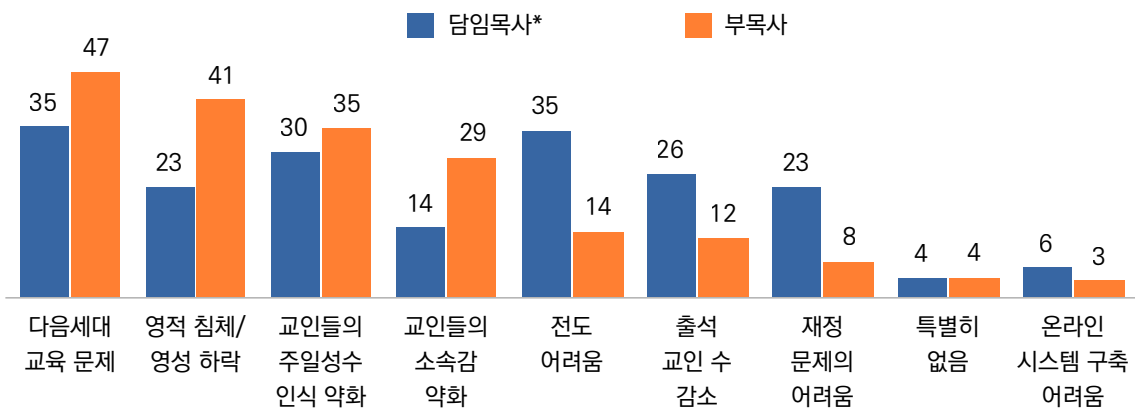
*매우+약간 있다, 별로+전혀 없다 비율임

03

부목사들이 꼽은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 ‘다음세대 교육!’

- ▶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다음세대 교육 문제(47%)’를 1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영적 침체/영성 하락’(41%), ‘교인들의 주일성수 인식 약화’(35%) 순으로 응답됐다.
- ▶ 이를 담임목사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부목사가 담임목사보다 ‘다음세대 교육문제’와 ‘영적 침체/영성하락’을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 ▶ 담임목사는 부목사에 비해 큰 틀에서 교회운영 및 유지, 재정에 신경쓰는 모습이었고, 부목사는 좀 더 세세하게 성도 양육 및 교육, 신앙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림] 현재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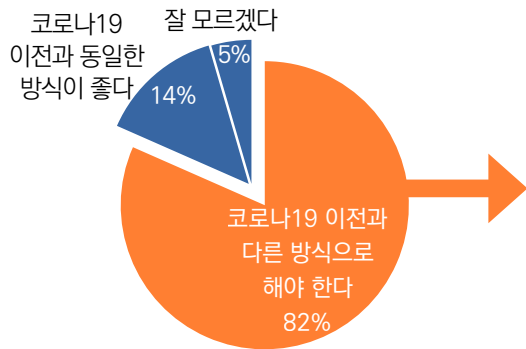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 보고서(목회자 3차)’, 2022.05.25.(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담임목사 981명, 모바일 조사, 2022.04.27.~0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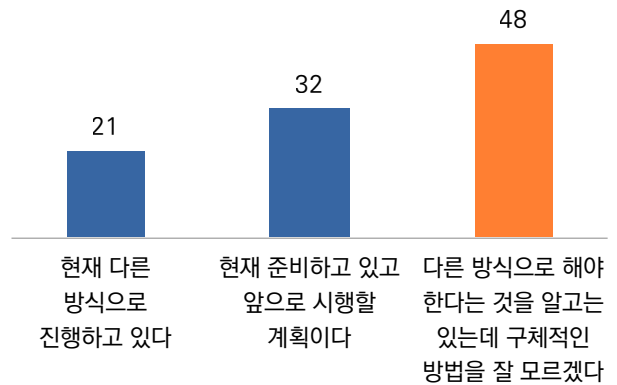
◎ 부목사 대부분(82%), 코로나 이후 교회학교 사역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중 절반가량(48%) '구체적 방법 모르겠다'!

- 부목사의 대부분(82%)은 코로나19 이후 교회학교 사역에 대해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렴됐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교회학교 사역 방식에 있어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을 때 '현재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고, 절반 가량(48%)은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답해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준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교회학교 사역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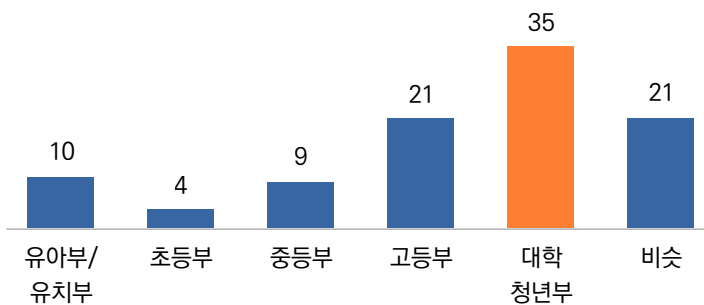
[그림] 코로나19 이후 교회학교 사역 다른 방식 진행 여부 (%)



◎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이 가장 어려운 다음 세대, '청년부'!

- 유아/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 그룹'이 어디인지 물었다. 부목사들은 '대학 청년부'가 35%로 가장 어렵다고 보았고, 다음으로 '고등부' 21%, '유아부/유치부' 10%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 다음 세대의 가장 위 그룹에 해당하는 '청년부'부터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다음세대 중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이 가장 어려운 그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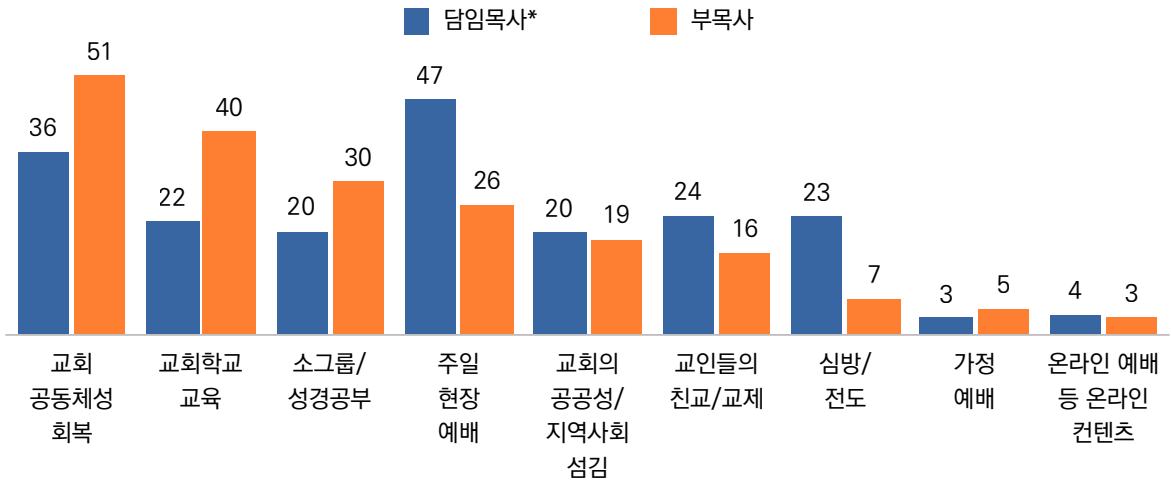


04

코로나19 이후 목회 중점 분야, 담임목사는 ‘주일 현장예배’, 부목사는 ‘공동체성 회복’!

- ▶ 부목사들에게 만일 본인이 담임목사라면 코로나 이후 목회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묻은 결과, ‘교회 공동체성 회복’(51%)과 ‘교회학교 교육’(40%)을 가장 높게 꼽았다.
- ▶ 이를 담임목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담임목사는 주일현장예배를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부목사는 교회공동체성 회복 그리고 교회학교 교육을 꼽아 서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향후 목회 중점 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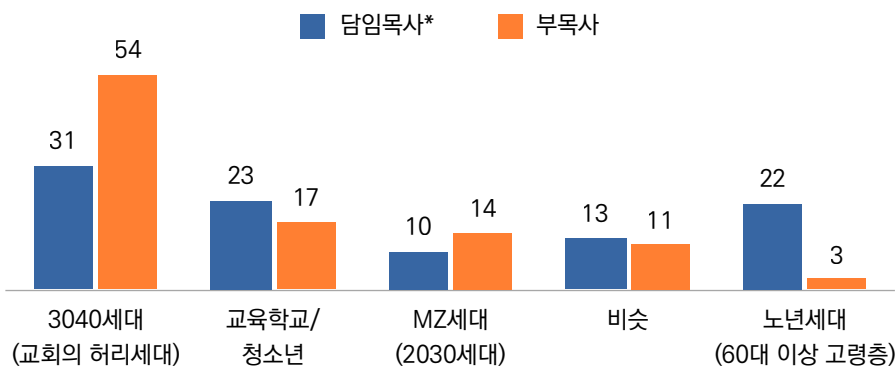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 보고서(목회자 3차)', 2022.05.25.(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담임목사 981명, 모바일 조사, 2022.04.27.-04.30)

◎ 향후 목회 중점은 ‘3040세대’에 두고 싶다!

- ▶ 본인이 담임목사라면 향후 목회에 더 중점을 두고 싶은 세대가 어디인지 묻은 결과, 54%가 ‘3040세대’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교회학교/청소년(17%)’, ‘MZ세대(14%)’ 순이었다.
- ▶ 부목사는 담임목사보다 ‘3040세대’를 꼽은 비율이 매우 높았고, 반면 담임목사는 부목사와 비교해 ‘노년세대’를 꼽은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향후 목회 중점 세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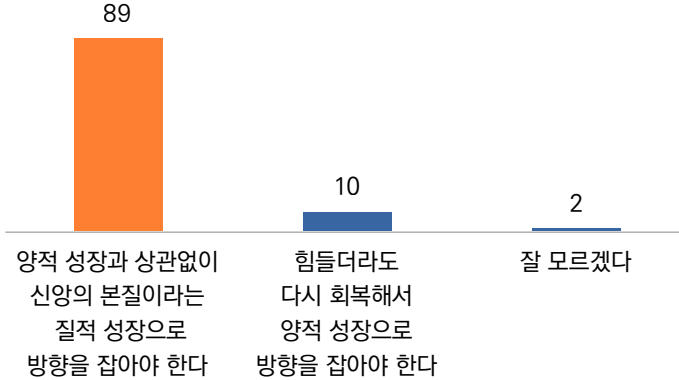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 보고서(목회자 3차)', 2022.05.25.(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담임목사 981명, 모바일 조사, 2022.04.27.-04.3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잡아야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부목사의 대부분(89%)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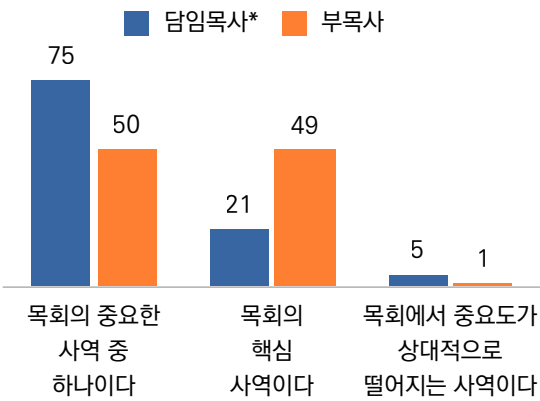
[그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방향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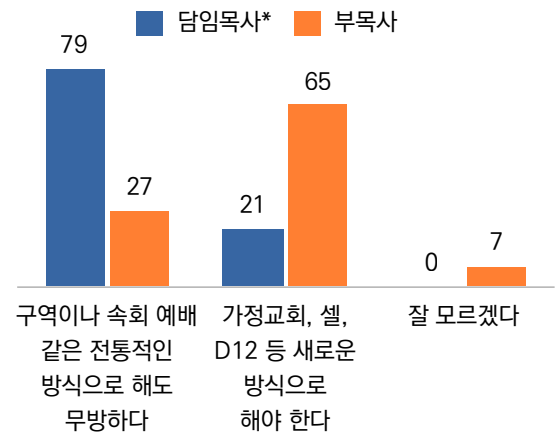
◎ 담임목사와 부목사 간, '소그룹 사역'에 있어 이견 보여!

- ▶ 소그룹 사역과 관련, 부목사는 담임목사에 비해 '소그룹 사역'을 '핵심사역'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 ▶ '향후 소그룹 운영 형태'에 있어서도 부목사와 담임목사 간 큰 인식 차를 보였는데, 부목사의 경우 '가정교회, 셀, D21 등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65%)'는 의견이 높은 반면, 담임목사는 '구역이나 속회 예배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79%나 차지했다.

[그림] 소그룹 사역에 대한 인식 (%)



[그림] 향후 소그룹 운영 형태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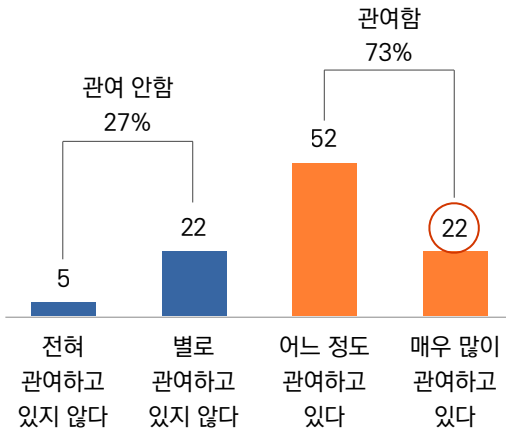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 보고서(목회자 3차)', 2022.05.25.(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담임목사 981명, 모바일 조사, 2022.04.27.~04.30)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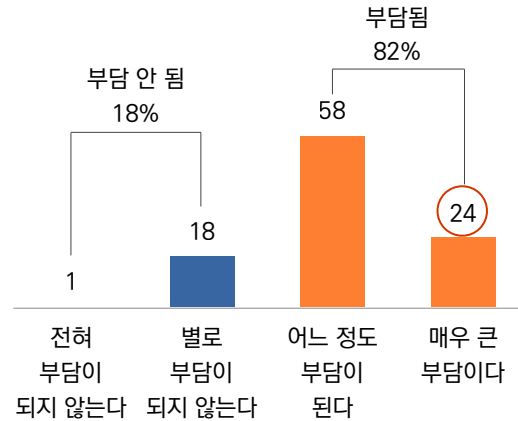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부목사의 4명 중 3명 온라인 사역 담당! → 대부분이 부담감 느껴!

- ▶ 코로나19 이후 부목사의 73%가 '온라인 사역에 관여(매우 많이+어느 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사역에 관여하는 부목사 대부분(82%)은 '온라인 사역이 부담된다(매우+어느 정도)'라고 답했다.
- ▶ 전체적으로 부목사 5명 중 1명 이상은 온라인 사역에 대해 관여도가 매우 높으며, 그 일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온라인 사역 관여도 (%)



[그림] 온라인 사역의 부담 정도
(온라인 사역 관여 부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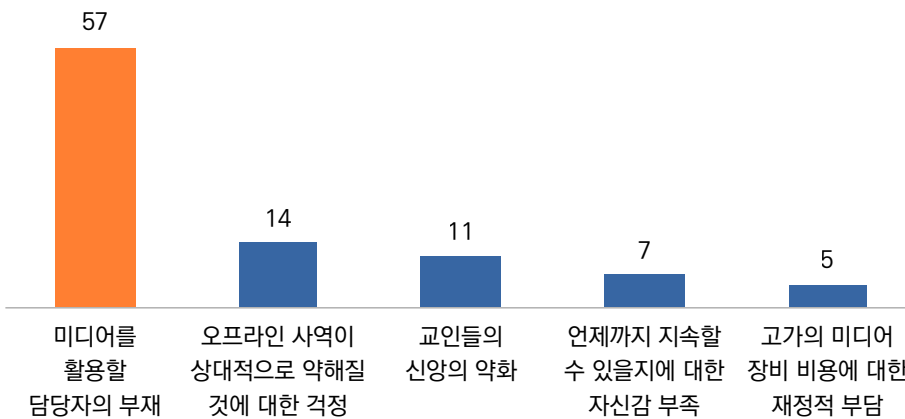


* 합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온라인 사역의 어려운 점, '전담 인력 부재'(57%)!

- ▶ '온라인 사역의 어려운 점'으로 '미디어를 활용할 담당자의 부재(57%)'가 가장 많이 꼽혀, 전담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부목사 사역이 과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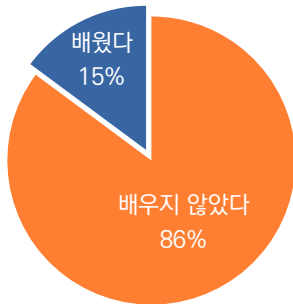
[그림] 온라인 사역의 어려운 점 (온라인 사역하는 부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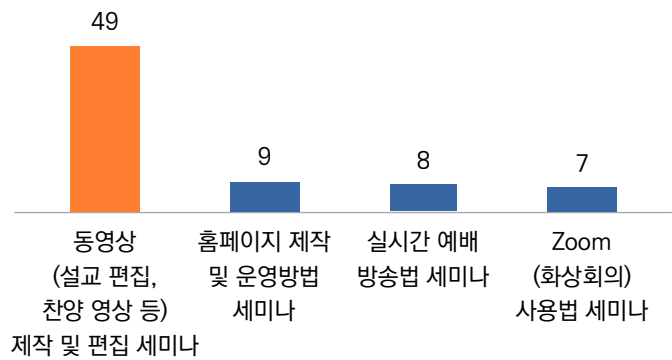
◎ 온라인 사역하는 부목사, '온라인 기술 배우지 않았다' 86%

- ▶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는 부목사에게 '온라인 기술에 대한 교육 경험 여부'를 물은 결과 대부분(86%)은 '배우지 않았다'고 답했고, '배웠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 ▶ 가장 듣고 싶은 '온라인 사역 세미나'는 '동영상 제작 및 편집'이 절반(49%)을 차지해 동영상 관련 교회/노회/총회 차원의 교육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온라인 기술에 대한 교육 경험
(온라인 사역 부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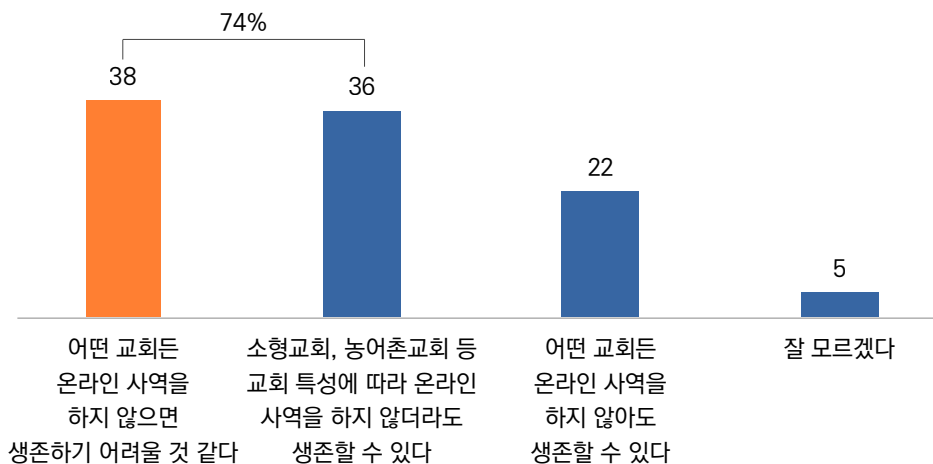
[그림] 온라인 사역 세미나에서 듣고 싶은 내용
(온라인 사역 부목사, %)



◎ 미래 교회의 온라인 사역 예상, 부목사의 74%, '일부 특정 교회를 제외하고 어떤 교회든 온라인 사역 안하면 생존 어려울 것'

- ▶ 온라인 사역과 한국교회 미래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어떤 교회든 온라인 사역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울 것 같다' 38%, '소형교회, 농어촌 교회 등 교회 특성에 따라 온라인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생존할 수 있다' 36%로 나타나, 부목사 4명 중 3명 가량(74%)은 온라인 사역을 하지 않아도 생존 가능한 일부 특정 교회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사역이 미래 한국교회의 생존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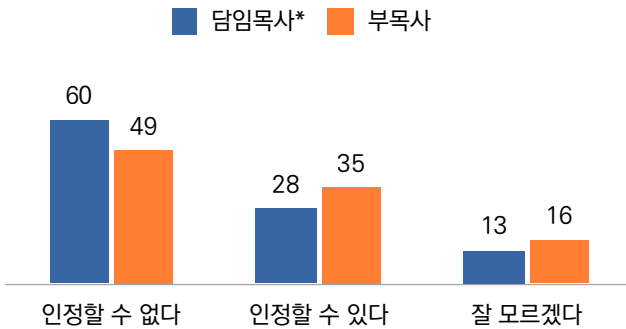
[그림] 한국교회 온라인 사역에 대한 의견 (%)



◎ 온라인 교회, 부목사 3명 중 1명(35%) ‘공교회로 인정할 수 있다!’

- ▶ ‘온라인상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교회를 공교회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부목사 3명 중 1명 이상(35%)은 온라인 교회를 공교회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 ▶ 담임목사 응답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공교회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응답이 담임목사는 28%로, 부목사가 담임목사에 비해 온라인교회에 좀 더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온라인 교회를 공교회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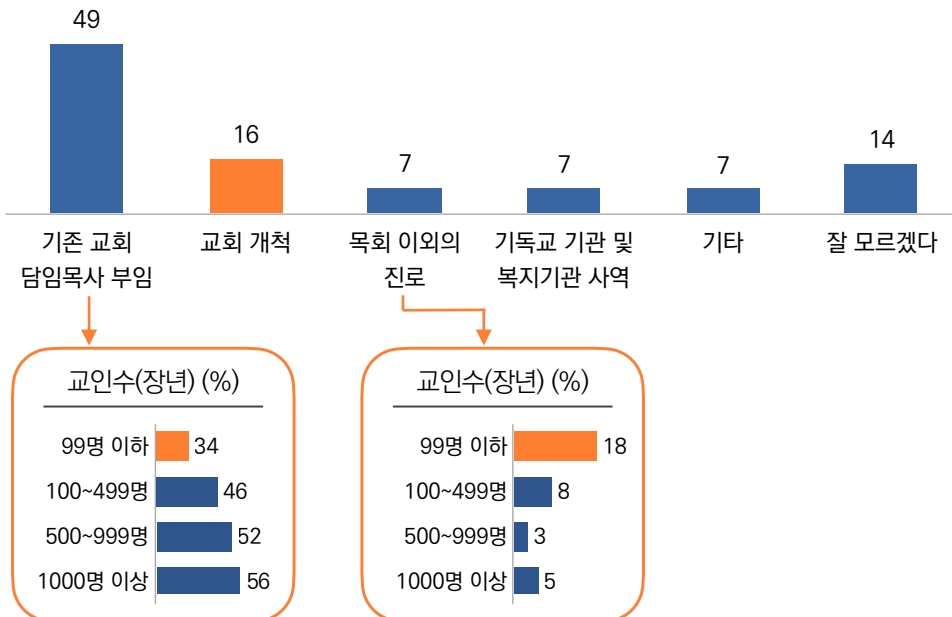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 보고서(목회자 3차)’, 2022.05.25.(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담임목사 981명, 모바일 조사, 2022.04.27.~04.30)

06

향후 진로, 부목사의 16%, ‘교회 개척하겠다!’

- ▶ 향후 사역 진로 계획에 대해 부목사의 49%가 ‘기존 교회 담임목사 부임’이라고 답했다. ‘교회 개척’은 16%에 그쳤다.
- ▶ ‘기존 교회 담임목사 부임’ 응답률은 교회 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교회규모가 큰 교회의 부목사일수록 기존교회 담임목사 부임 의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회규모가 작은 교회의 부목사일수록 ‘목회 이외의 진로’, ‘기독교 기관 및 복지기관 사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존교회 담임목사로 가는 길이 교회 양극화와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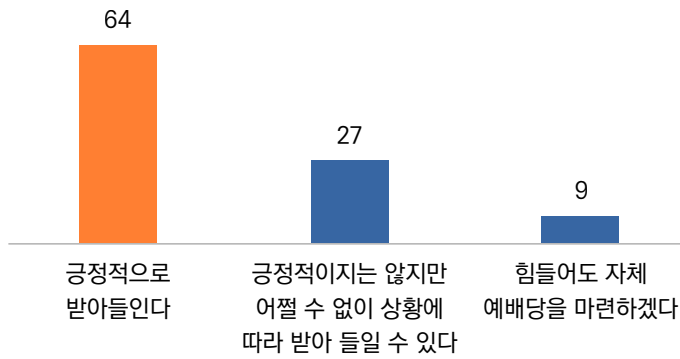
[그림] 향후 진로 계획 (%)



◎ 개척시 공유 교회에 대해, 부목사의 대부분(91%)이 수용의사를 밝혀!

- ▶ 개척시 '예배 공간을 여러 교회가 시간대를 달리해서 사용하는 공유 교회(Shared Church)'에 대한 부목사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64%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응답했고, '긍정적이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답변도 27%로 나타나 10명 중 9명(91%)은 '공유 교회'에 대한 수용 의사가 있음을 보였다.

[그림] 공유 교회(Shared Church)에 대한 인식 (%)



교회에서 부목사는 교회 규모가 일정 정도가 되면 필수적이지만, 부목사의 위상은 애매모호하다.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움직이므로 성도들은 담임목사에게는 관심과 예우를 신경 쓰지만 부목사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교회 현실이다.

부목사의 근무 조건은 열악하다. 부목사들은 1주일에 평균 5.7일을 사역한다고 조사되었다. 주 5일 근무가 정착한 요즘에 5.7일을 근무한다는 것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근무일보다 더 심한 것은 사역 시간이다. 부목사들은 1일 평균 9.8시간을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매일 10시간에 가까운 사역은 매우 힘든 조건이며, 담임 목사 후보생들이 소위 개인의 라이프(Life)도 없을 뿐더러 미래 사역을 위해 자기 계발을 할 시간적, 육체적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충분히 경제적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아니다. 사역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더라도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면 그나마 위안이라도 될텐데, 현재 각 교회에서는 충분한 사례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보면 부목사들은 사례비를 월 평균 26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수령액이라 하더라도 직장인 기준 연봉 3,500만 원 수준 정도되는 금액이다. 심지어 교인 수 100명 미만 교회에서는 월 사례비가 최저임금(2022년 19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77만 원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은 이를 받는이나 주는이나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부목사들 가운데 10%는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종직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부목사들의 절반 이상인 57%는 앞으로 '이종직'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교회에서 이종직이 대부분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생계형 이종직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이종직 하고 있는 비율이 10%인데 향후 의향률이 57%까지 보인다는 것은 현재 부목사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부목사들의 사역 부담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더욱 가중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

구역 모임 등 온라인 사역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사역의 대부분이 부목사가 해야 할 일이 되었다. 그나마 대형교회는 온라인 사역 담당자가 있지만, 중소형 교회는 미디어 담당자가 없어서(57%) 온라인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부담은 오롯이 부목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온라인 사역하는 부목사들 가운데 86%가 온라인 기술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부목사들의 거의 대부분(82%)이 갑자기 맡게 된 온라인 사역에 부담을 안고 있다고 토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온라인 사역은 설교 촬영, 편집, 송출 업무가 기본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다고 49%가 응답한 것은 자기들의 부족한 점을 잘 알기 때문이며 미래 교회에서는 온라인 사역이 필수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74%)을 하기 때문이다.

부목사들은 교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없다면 교회는 속칭 '돌아가지' 않는다. 이들의 막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부목사들은 그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 부목사들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명감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지만 박탈감은 매우 클 것은 명약관하하다. 부목사와 관련해서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기 발전을 위한 자기 계발을 할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부목사는 앞으로 한국교회의 바통을 이어받을 담임 목사 후보생들이다. 이들의 역량이 외우내환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좌우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 교회는 부목사들을 현재 사역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부목사들이 담임목사로서 목회하는데 필요한 자기 계발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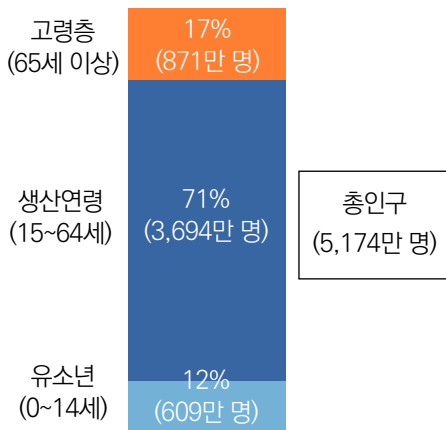
1. [노령화지수와 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2. [동물실험과 개 식용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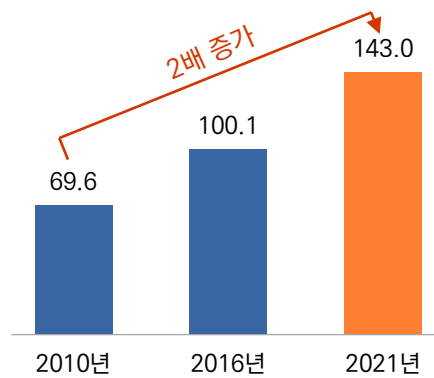
노령화지수, 10년 간 2배 높아져!

- ▶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4만 명인데 그 중 유소년(0~14세) 609만 명, 생산연령(15~64세) 3,694만 명, 고령층(65세 이상) 871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1.4배나 많은 시대가 된 것이다.
- ▶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를 살펴보면, 2010년 69.6에서 2021년 143.0으로 10년 사이에 2배가 높아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021년 연령별 인구 분포



[그림] 노령화 지수 (유소년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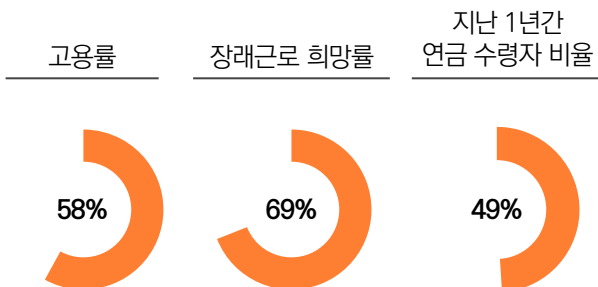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2.0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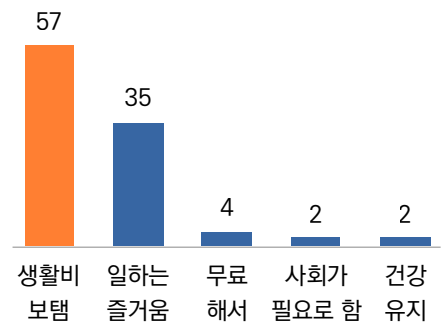
◎ 고령층 인구, 10명 중 7명 가까이 '장래 일하길 원한다!' 이유는 '생계유지'!

- ▶ 통계청의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인구의 58%는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10명 중 7명 정도(69%)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령층의 지난 1년간 연금 수령 비율은 49%로 절반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 ▶ 고령층의 근로 희망 사유로 절반 이상인 57%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일하는 즐거움(35%)', '무료해서(4%)', '사회가 필요로 함' 순으로, 생계유지가 절대적인 이유로 조사됐다.

[그림]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상태 현황



[그림] 고령층의 장래근로 희망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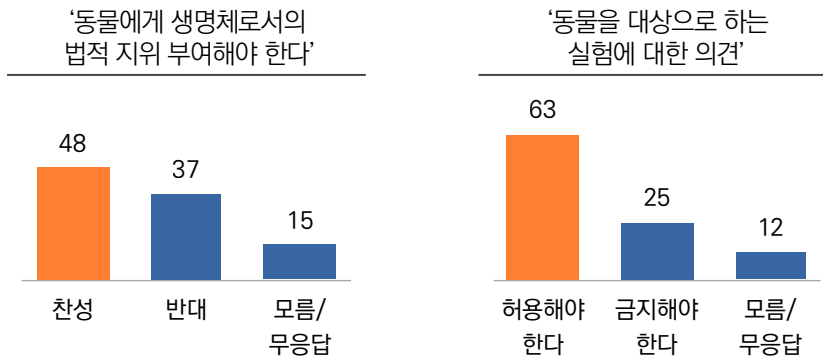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2.07.26.



‘동물에게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해야’, 절반가량(48%) 찬성!

- ▶ 동물에게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주는 것에 대해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나라민의 절반가량(48%)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 ▶ 한편 ‘과학계의 동물 대상 실험’에 대해, 63%가 건강, 의학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물에게 생명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는 등의 이익이 ‘동물을 상해하고 고통을 주는 것’에 앞선다는 판단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동물권/동물실험 관련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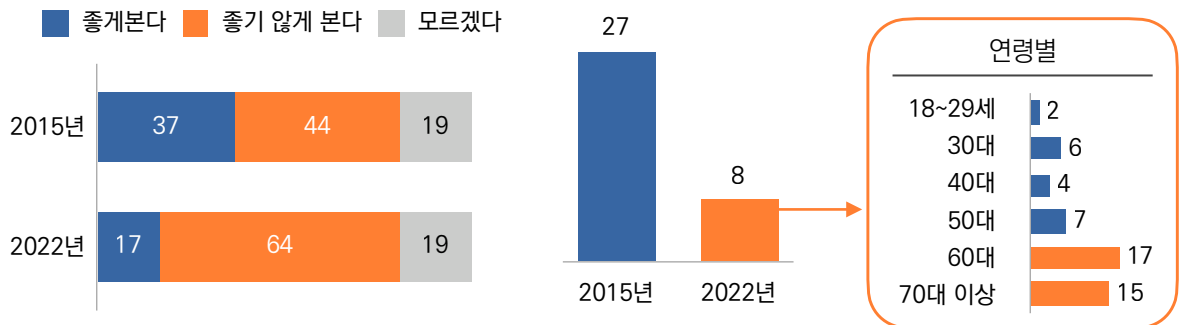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동물의 법적 지위, 과학계 동물실험, 동물 감정, 개 식용 관련 인식 리포트(데일리 오피니언 제506호), 2022.08.05.(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전화조사, 2022.08.02.~04)

◎ 한국인, 개 식용에 대해 ‘부정적’ 의견(64%) 7년 사이 크게 높아져!

- ▶ 개 식용에 대해 ‘좋게 본다’ 17%, ‘좋지 않게 본다’ 64%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인식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 ▶ 2015년 대비 부정인식이 44% → 64%로 크게 높아진 점이 특징적이다.
- ▶ 최근 1년간 개 식용률은 2015년 27%에서 2022년 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별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 노년층에서는 ‘개 식용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개 식용 관련 인식 (2015 vs 2022, %)

[그림] 최근 1년간 개 식용 경험 ‘있다’ (2015 vs 2022, %)



*자료 출처 : 한국갤럽, 동물의 법적 지위, 과학계 동물실험, 동물 감정, 개 식용 관련 인식 리포트(데일리 오피니언 제506호), 2022.08.05.(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전화조사, 2022.08.02.~04)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07호\(2022년 8월 2주\)](#)

-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정당지지도, 주변국 관계, 일본 관계 인식 등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77호\(2022년 8월 2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긍정/부정 평가 이유, 국정운영 신뢰도, 정당지지도 등

[여당 위기 책임 윤해관<대통령>이준석·차기 대표 유승민 21.4%로 1위](#)

MBC_2022.08.15.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19%, 22개국 지도자 중 '꼴찌'](#)

오마이뉴스_2022.08.11.

◎ 사회 일반

[한강교량 위 'SOS생명의전화' 11년간 9050명 자살위기자 구해](#)

헬스조선_2022.08.10.

["취업도 결혼도 완벽하게 준비된 후에"... 출발 늦추는 '자연사회'](#)

조선일보_2022.08.10.

["폭우 치명린다" 반지하 62만명...현실판 '기생충' 참담한 현장](#)

중앙일보_2022.08.11.

[누가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가? - 범죄인식 조사](#)

한국리서치(여론 속의 여론)_2022.08.09.

[인구 6만명 줄었는데, 교통약자 80만명 늘었다...10명 중 3명꼴](#)

중앙일보_2022.08.09.

[한국인 85%-日 67%, 양국관계 개선 원해](#)

동아일보_2022.08.12.

[식용목적 사육견 50만마리 넘어...국민 56% "개 식용 멈춰야"](#)

연합뉴스_2022.08.08.

[건강관리 트렌드 리포트 2022](#)

오픈서베이_2022.08.

[모텔=성관계 동의? 남성 '긍정' 여성 '부정' 많았다](#)

서울신문_2022.08.13.

◎ MZ세대

["공도 치고 짝도 찾고"... '골프팅'에 빠진 2030세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일보_2022.08.13.

['굿샷'보다 '인증샷'...MZ세대는 왜 '이 운동'에 빠졌을까?](#)

조선일보_2022.07.19.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경제**

[여성임원 많은 회사 찾아보니... 사장은 네이버에 단 1명](#)

중앙일보_2022.08.10.

[한국 조선, 지난달 세계 발주량 55% 수주](#)

동아일보_2022.08.10.

◎ **기독교 / 종교**

[전체 교인수 235만 8914명...2030년, 200만명선 붕괴](#)

한국기독교공보_2022.08.12.

[예장통합, 은퇴 목회자 연금 지급률 15% 삭감 추진](#)

국민일보_2022.08.04.

[코로나 블루 물든 美 교회...교회가 적극적 돌봄 나서야](#)

국민일보_2022.08.09.

[美 목회자 67%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은 안락함”](#)

크리스천투데이_2022.08.12.

◎ **칼럼**

[약점 보완 매달릴 시간에 장점을 극대화하라](#)

매일경제_2022.08.11.

[동굴에 들어간 자녀를 둔 부모에게](#)

국민일보_2022.08.11.

[카페에서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 나라 / 박권일](#)

한겨레_2022.08.11.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울리브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평교회, 이름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삼신테크, (주)셀파 C&C,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백산, CNP코퍼레이션(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권순홍,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운,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산,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섭,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응림, 전치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헌,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응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